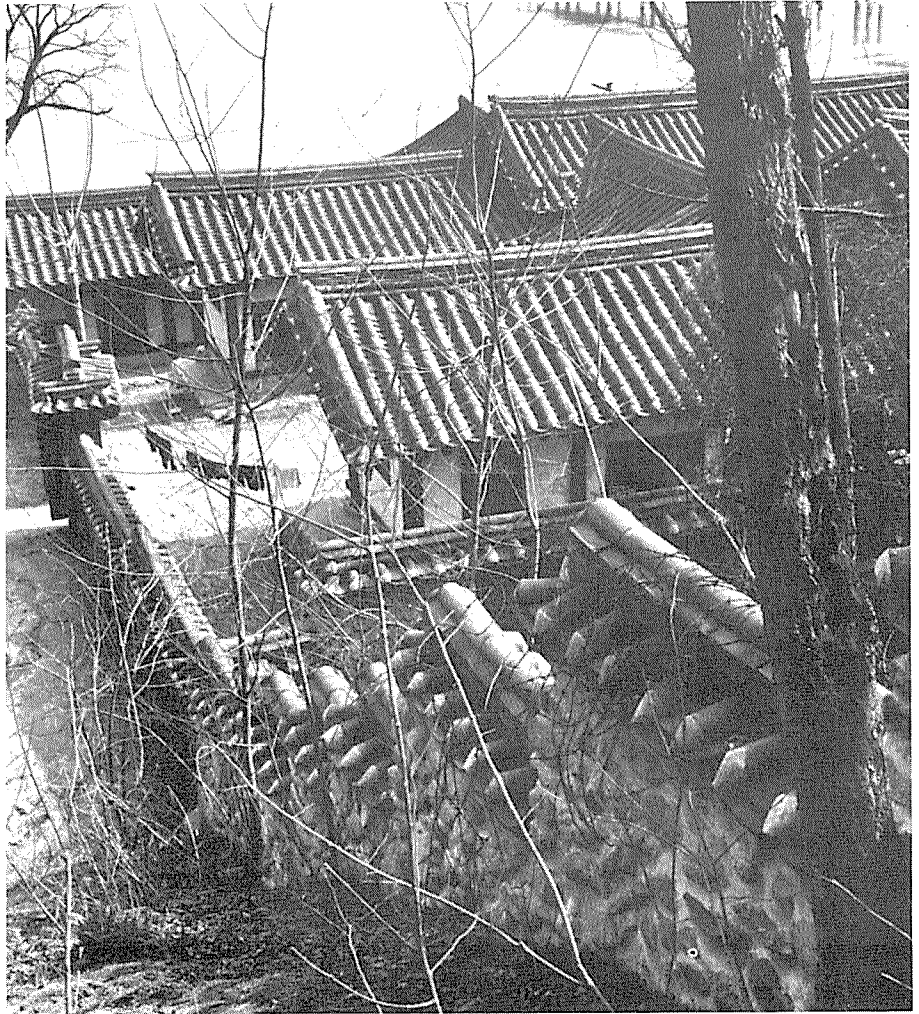


하회. 안동마을을 찾아서

■
Travel Description
Visiting of
Hahoe Andong Village
by Kim, Suk-Chul



안동 臨淸閣

□ 하회마을을 찾아

장호원, 수안보를 지나 조령으로 들어선다. 여기가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다. 높은 산들로 쌓인 분지가 나타난다. 맑게 길을 따라 잔잔히 흐르던 강이 서서히 휘돌기 시작한다. 산 그림자가 물에 잠기고 구름사이를 산들이 스치어 간다.

문경으로 나온다.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정갈한 도시다. 최근의 번두리스러운 새 건물들만 없었으면 더 맑은 느낌이 들, 산 사이의 도시다. 산 빛깔이 푸른 산림사이로 시커멓다. 흑연, 석탄 빛깔이다. 하회 마을은 풍산면에서 멀리 들어간다. 풍산면 에서도 느끼는 일이지만 국도가 읍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공공적 장소들의 자연스러운 배치로 이를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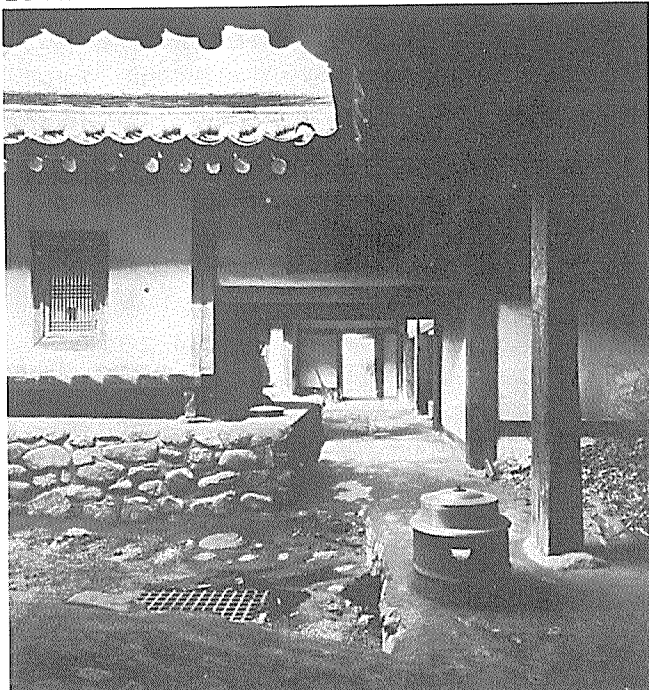
지나는 차들이 마을을 다치게 해서는 곤란하지만 다른 세계들과의 커넥션이 뒤로 밀린 것도 바람직 한 것만은 아니다. 하회마을은 풍산읍 못미쳐서 들판으로 길게 개천을 따라 난 길로 멀리 들어간다. 서울서 부터 계속되던 아스팔트가 흙길로 바뀐다. 약간 덜컹덜컹 거리기는 하지만 길가의 코스모스는 더 청량하고 먼지길 위로 하늘은 높고 푸르다. 어둠이 깔린다. 밤은 이렇게 하늘로 부터가 아니라 땅으로 부터 시작한다. 별판 멀리서 부터 뿌연 안개사이로 어둠이 밀리어 온다. 하회마을에 당도하였을 때는 많이 어두웠다. 가는 길에 이 마을 두 유지가 동승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이미 많이 어두워진 옛 마을을 서둘러 한바퀴 돌아보았다. 민박을 하는 집이 여럿있다. 배가고파 재촉해 저녁을 부탁한다. 반찬이 짜다. 막걸리를 전식으로 두병이나 비우고 평소 반공기만 먹다가 큰 한그릇을 다

먹고나니 배가 불러 숨이 차다. 산책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전기가 없는 마을이라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밤이면 자는 수 밖에 없겠다. 방에 돌아와 두 부부가 할 일 없이 막걸리를 마신다. 어둠자 마자 이렇게 방에 들어와 먹고 마시니 편하고 좋기보다 오히려 아쉬운 첫밤이 되었다.

새벽 잠이 깨었다. 이렇게 멀리 시골에 오면 잠이 빨리 깨인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세수를 한다. 물에 체온이 스민다. 오래 양치질을 하고 오랫동안 우물 물맛을 본다. 간단히 아침을 마치고 옛마을 한가운데를 간다. 우리가 머문집도 지은지가 백년이 넘는 집이다. 기와에 청동 반접이 고색스럽다.

마을 한 복판으로 들어선다. 길따라 이리저리 밀리어가는 담들, 청동 빛갈을 한 기와들, 퇴락한 짙은 갈색의 백여년씩 된 목조이 가구들, 감나무들, 마당 이곳저곳의 발들이 아침 안개속에 차츰 모습을 들어낸다. 수백년전 당시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러 빈집이 있기는 하나 일부 사람이 살고있다. 솥을대문 사이를 지나면 사랑채는 대개 비어있으나 안채 한 구석에 플라스틱 상이 보이고 유치한 빛갈의 가전제품이 눈에 들어온다. 여자들의 파마한 얼굴은 지쳐있다.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양반 타령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 나라를 빼앗겼으면 서도 아직 뿌리깊이 남아있는 계급의식의 잔해를 보는 착잡함이 있다. 사진지식이 없어 빙 한번 둘러보고 그 중 제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서너 큰집을 다시보기로 한다. 마을구조는 마을 자체의 기본구조가 몇 대가집 중심의 씨족마을이어서 볼 것이 없다. 사육신 마을인 태고정 같이 한 마을을 이루는 집단형식 대신 족보가 형상원리가 되었다. 이 중 하나의

안동 臨淸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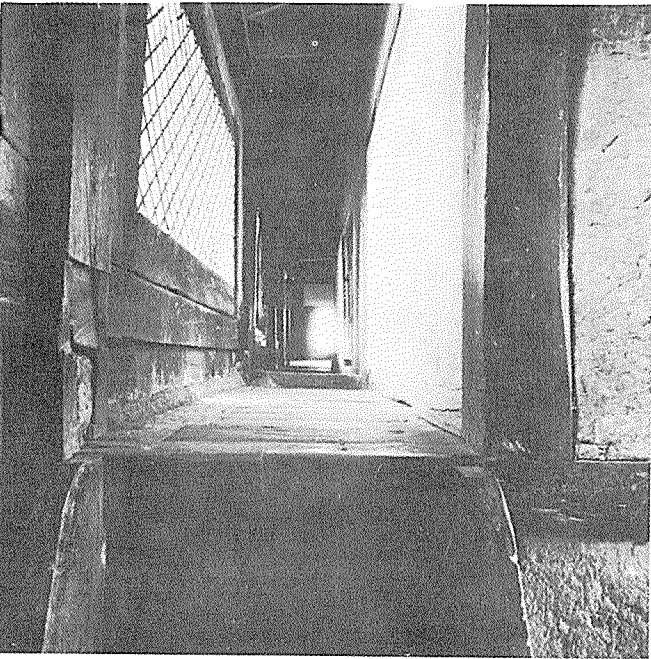


큰집인 양진당을 먼저 보았다. 고적을 답사하듯 하던 느낌이 문득 가신다. 집이 땅에 깊이 매어 있으면서 주위로 떠 오른다. 긴 행랑채 뒤로 좌측의 안채와 우측의 사랑채가 솥을 대문과 담들과 어울려 한 완전한 형상을 이룬다. 행랑채 솥을 대문을 지나 사랑채에 들어서자 석자쯤 돌기단 위에 사랑채가 우뚝하다. 일자인 행랑채와 미음자의 안채는 서로 이어져 하나가 되고 안채에 붙어 사랑채가 후원측으로 연결되었다. 일자 행랑채가 미음자의 아래가 되어있다. 미음자 옷측에 안방과 대청이 있고 좌측은 아마 주로 고방인 듯하고 우측은 부엌이다. 사랑채 뒤 후원의 흰 모밀꽃과 안채 옆 채원의 배추와 무밭은 미소로운 대조를 이룬다. 기와지붕이 많이 갈렸으나 기본 결구는 다 살아있다. 사랑채는 그저 배운데로의 것인데 안채 증정은 놀랍다. 필요한데로 하고 싶은데로 만든것 같기도 하고 엄격한 격식이 있어도 보인다. 책에서 보던 것보다 많이 자유스럽다.

어떤 양식의 세부적 전개보다 자유분방한 부분의 펼침이 눈에 뜨인다.

양진당 건너편의 충효당은 바로 이 풍산류씨의 종가 집인데 충효당은 바로 그 사랑채의 당호다. 여러번 사진에서 본 집이다. 건축형식은 양진당과 비슷하나 입지의 방식이나 외부 공간과의 연계형식이 많이 다르다. 사랑채에 해당하는 충효당은 양진당의 사랑채 보다는 간결하나 좀 더 깊이있는 격식을 갖고 있다. 양진당 사랑채가 전통형식의 반복이라면 이 충효당은 한국 건축특유의 스케일 조작과 시퀀스 변조의 깨달음 있는 펼침이 있다. 다섯단 높이의 대청뒤로 후원으로 열리는 문도 그렇지만 좌측의 두 사랑방의 기묘한 안온함이나 우측 대청이 빗기어 난간이 되면서 생김 방과 마루의 회안한 엇갈림과 열린은 명장의 자유자재한 품격을 느끼게 한다. 안채는 문을 닫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사랑채와 안채가 행랑채로 받쳐있는 기본 결구는 비슷하나 무엇이 많이 다르다. 중국인들은 많은 여러가지 격식들을 시도하였으나 우리는 주어진 몇 형식속에 이렇게 많은 가짓수의 새로움을 만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얇은 고답의 경지를 통해 서로 알려지는 것이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그 깊이와 다양성에 비해 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연유가 아닌가 느껴진다. 우리는 자금성이나 북경의 주택에 감동하기 보다 여기 이 하회의 집들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대가집인 북촌택을 가본다. 이 집은 형식이 많이 다르다. 행랑채가 담을 겸하고 있고 사랑채와 안채가 미음자 하나로 되어 있다. 바깥 부분인 사랑채는 미음자 아래 가운데의 증문 오른쪽 두 방과 마루로 이루어진 집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증정에 사랑채가 바로 면해 있다. 증문을 지나면 바로 정면 안채다. 안채가 더 높고 당당하다. 목가구의 결구도 사랑채에 비해 장려하다. 섬 돌위의 안채와 다소곳한 사랑채와 좌우의 이어짐에는 파격과 해학이 있다. 안채 안방뒤의 부엌은 사랑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집을 지었던 당시 이 류씨의 집안의 권력구조가 아마 마님 책임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안동 義城金氏宗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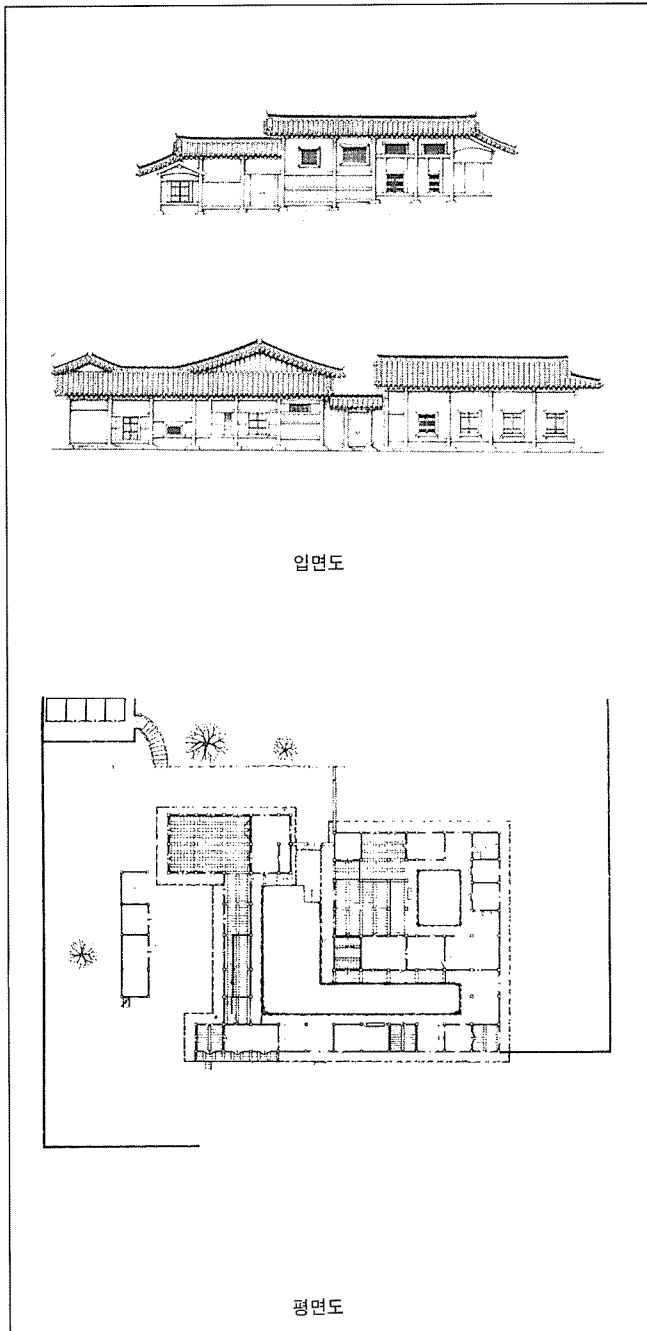
그러나 하긴 미움자 본체인 이 집 우측에 한옥으로는 화려한 별당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실세는 남자에 있었던 듯도하다. 백교수 집을 설계할 때 집안의 권력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던 수사를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일은 매양 이렇듯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한나절 집들만 보다보니 감동스럽기는 하지만 지친다. 인상이 겹쳐 어지럽기도 하다. 하회마을이 된 그 하회로 간다. 마을을 태극무늬로 감싸고 도는 강가로 나간다. 강 건너 절벽이 보이고 강앞 모래사장 이편으로 붉으스레 잘 큰 솔밭이 있다. 물이 흐른다. 물살의 센 흐름이 보인다. 하늘이 비치고 앞산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사이를 모래벌 강자갈 뒤로 희다가 푸르다가 퍼렇게 드리우는 녹색빛깔을 하고 물살이 소리하며 돌아 흐른다. 깊이마다 다른 소리를 한다. 휘감긴 저 편을 큰 모래벌이 멀리 이어간다. 바람과 세월에 빗바랜 암벽이 물소리 위로 입립한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만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 마을을 이루었나 보다. 탈방에 가서 본 하회의 탈들은 인사동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다. 탈을 만드는 사람의 현학스러운 설명도 들을만한 사실 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유서깊은 양반마을이 유학과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탈춤의 본 고장이 된 일은 시경 첫 머리의 공자 말씀과는 어떤 연관일까. 역시 그것도 아름다운 산하에 그 이유가 있는 듯 하다.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말은 끝없는 변환의 자연을 말한다. 아침과 저녁, 낮과 밤, 가을과 겨울, 봄과 여름이 모두 각기의 얼굴을 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인간에게 자연의 신비를 알게 한다. 자연의 소리를 깊이 듣는 그 일이 바로 문화일 것이다. 더 마을을 둘러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다. 안동으로 가서 수물지구의 옛 고가를 복원해 놓은 민속촌에도 가고 싶고 천전마을의 의성김씨 종가도 봐야할 것 같다.

풍산읍에서 안동으로 가는 길은 잠시 머물고 싶도록 환하다. 안동땀 근처에 수물지구의 집들을 옮겨 복원한 민속촌으로 간다. 가는 길목들도 좋지만 안동땀과 그 주위의 경관도 눈부시다. 우선 경치에 반한다. 땀 북측 기슭에 수물지구의 집들을 본래 위치 비슷한 자리에 이전 재현하였다. 그대로 뜯어다 옮긴 것이다. 하회에서 본 고가들은 마을의 많은 부분이 훼손된 채 서로 뒤엎기었는데 여기서 마을은 없어지고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들처럼 큰 관련의 느낌은 없으나 건축 그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더 자세한 본래의 느낌을 볼 수 있다. 두 큰 기와집 들도 볼만 하였으나 두단 호박돌 기단위의 화전민 주택과 긴 토담위에서 서너채로 구성된 초가집은 땅과 하늘 사이의 인간의 삶 그것같은 토지적 건축의 질음을 보인다. 초가집 들인데도 담위로 지붕이 가볍게 부유하고 추녀는 빈벽 기둥측에 와서 문득 튀어있다. 초가의 추녀가 이렇게 또한 변조를 보일 줄은 몰랐다. 모두 여덟 정도의 가옥들인데 그 중 둘은 민속 음식점으로 쓰이고 있다. 유명한 안동음식인 헛재삿밥을 준비시키고 담 옆 평상에 앉아 메밀, 모밀, 도토리인 세 종류의 묵과 파전, 고추전, 빈대떡등을 안주로 막걸리를 마신다. 내려다 보이는 안동땀 안측 호수도 볼만하지만 주위의 산과 들이 바라보이는 풍광이 아름답다.

양반들이 유학과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탈춤의 본 고장이 된 일은 시경 첫머리의 공자 말씀과는 어떤 연관일까. 역시 그것도 아름다운 산하에 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말은 끝없는 변환의 자연을 말한다.

로비하우스는 이 집에 비하면 진부하기까지 하다.
 이런 천재들이 말도 없이 살다 갔다.
 간혹 민화나 이조의 목기들을 보다가
 문득 숙연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느낌의 크기가 더 크다.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잊혀졌다.
 늦었지만 자세히 보고 공부해야겠다.

안동 義城金氏宗邸



입면도

평면도

목도 달고 전들도 맛있다. 차를 몰아야 될 정 이사도 잘도 마신다. 햇재삿밥은 밀양서 살던 어린시절의 자세한 구석들을 회상시킨다. 많이 마시고 먹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이런데서 퍼질고 잠시 살았으면 싶다.

김진균 교수가 꼭 보아야 한다던 의성김씨 종가를 찾는다. 가는 도중이 그렇게 좋다. 책에서만 보았던 안동전탑이 보인다. 오른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좌측 산기슭이 문득 넓어지는 곳마다 옛 마을이 나타난다. 의성김씨 종가가 있는 곳은 이런 장소다. 아마 강 앞이라서 인지 천전이라는 이름의 마을이다. 멀리서 차츰 다가서다가 저절로 아! 하는 소리를 낸다. 아름다운 집이다. 위태스러운 정도의 파조속에 대단한 그래비티를 가진 집이다. 바라보이는 우측에 청동색 지붕이 부유하듯 영키어 선 다른 또 한집이 보인다. 두 집이 비스한 조우를 이루고 있다. 의성김씨 종가를 들어선다. 길게 바깥채가 있고 바깥채의 좌측은 한칸 높고 우측은 낮은데 낮은 우측에 솟을 대문이 아닌 그냥 대문이 있고 우측으로는 담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문이 있다. 대문안으로는 중정이 있고 대문측에 약간 좌측으로 비껴서서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후원으로 통하는 문과 담이 있다. 좌측 공간은 이층높이로 아랫층은 공간이고 위는 옆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좌측의 사랑채로 연결된다. 사랑채는 세 방향이 문이고 우측에 사랑방이 있다.

반층 이상 높이에 사랑채가 있어 안채와의 분절이 자연스럽다. 사랑채에 앉으면 세 방향의 정원이 비껴어 지듯 연속한다. 바깥채 측으로 퇴이면서 안채의 중정으로 연속하는데 담힘과 열림의 변조에는 가히 선적인 경지가 있다. 더구나 작은 스케일의 안채 중정과 대청의 가구가 연결되어 마당과 마루가 한 공간으로 일으며 지는 것은 가히 절정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보아야 할 그런 집이다. 로비하우스는 이집에 비하면 진부하기 까지 하다. 이런 천재들이 말도 없이 살다갔다. 간혹 민화나 이조의 목기들을 보다가 문득 숙연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느낌의 크기가 더 크다.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잊혀졌다. 늦었지만 자세히 보고 또 공부해야 겠다. 자유분방함 속의 격식과 엄격한 형식속의 파격들이 한 실재로서 우리앞에 나타나고 있다. 서로다른 것이 하나가 되었다. 건축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능성을 잊고 어디를 그동안 다녔던 것일까?

이 자연스런운 천재는 내가 화이트를 당도하였을 때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느낌은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예감케 한다. 어렵겠지만 남들의 관심 대신 자신의 대지속에서 자신의 역사속에서 솟는 새로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벌써 어둡기 시작한다.

서울에 가면 한 밤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풍요롭다. 오는 길에 수안보에 들러 뜨거운 물을 가득받고 목욕을 하였다. 귀로의 밤길이 이렇게 가볍고 흥분스럽다. 집에오니 밤 열두시 한 시간이나 넘었다. 그리고 보니 일박 삼일의 여행이 되었다. 내일은 종일 자야겠다.